

**추수감사절
설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5:18>



채은숙목사 (오가키교회)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영국 왕이 종교의 수장이 되어 만든 영국 국교, 즉 성공회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자 청교도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102명이 영국을 떠났으나 항해 중에 1명이 죽었고 66일의 항해 끝에 미국의 북부 메사추세츠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추위에 식량도 부족했고 겨울 옷도 부족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폐결핵과 감기에 걸렸고 이국 땅에서 풍토병에 걸려 그들이 미국에 도착한 다음 해 2월이 되어 보니 101명 중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도와 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인디언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원주민 완파노악 족들은 서로 침해하지 않기로 불가침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고 옥수수, 보리, 밀, 감자, 호박, 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법을 알려 주었고,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가을을 맞이하여 곡식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곳에 완파노악 족을 초대합니다. 완파노악 족 원주민이 사슴과 칠면조 고기를 가지고 와서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때가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고 이것을 공식적인 추수감사절의 기원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알아 보면 처음 드린 추수감사절은 곡식과 과일의 수확을 감사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했고 오직 하나님만 잘 믿겠다는 생각으로 건너 온 이국 땅에서 매일 죽어 나가는 동료들의 시신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처음으로 드린 추수감사절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도 지켜 온 믿음의 예배였고 그들을 돌보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에 비장함이 묻어나는 추수감사 예배였을 겁니다.

형통할 때에는 누구나 감사 드리기가 쉽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기쁜 일이 연이어 생기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울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감사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같이 사회 전체에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넘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강제로 이동을 금지 당해 마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분이고, 경기침체로 도산의 위험과 생계의 위협을 받는 분들은 말할 수 없이 초조한 밤을 새우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백신이 개발되어 유통되기만을 마냥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피하고 멀리 하게 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뉴노멀 시대에도 어떻게 대처할지도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범사에” 입니다. “범사에” 라는 것은 좋은 상황만 아니라 나쁜 상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눈 앞이 캄캄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면 읊과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인생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우리에게는 문제의 해결 방법과 대답이 없지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局へ

讃頌歌委員会より「子どもさんびか」が発行されました。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読文・十戒 集録
(いず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総会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특 집 신형코로나19의 감염 위기와 교회 예배 현상

관동지방회 야마가타우리교회 이명신 목사

코로나19 이후 방역에 충실하며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강단과 신도들의 좌석 사이에 아크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각 개인의 온도를 체크하여 기록하고, 거리를 두며 앉아 성가대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회의는 ZOOM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보고는 게시판에 게재 놓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도들에게는 설교화일을 보내고, 전화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들의 삶을 현장인 과수원이나 논밭에서 일하시는 신도들을 찾아가 예배당에서 부족한 교제를 삶의 현장에서 채워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께서 일해가시는 섭리에 눈을 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 예배를 넘어 매일 매 순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동지방회 동경중앙교회 장승권 목사

당회와 제직, 신도 모두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한 K-방역 수준의 활동 일체와 현장 및 온라인 예배 병행, 나눔과 교제(식사) 등의 일시 중단은 다른 교회들과 같습니다. 다만, 해외 및 국내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규 지원을 늘렸습니다. 인도 뭍바이의 '반드라푸르' 지역에 SAFE PACK(전도지/마스크/영양제 등 10여 종 담은 선물 꾸러미)을 제작/배포하는 사역에 정기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총회 안과 밖 교회 두 곳에 정기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써 돕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임을 전 교인이 동의하고 최선을 다해 동참하고 있습니다.

관동지방회 사랑의 전도소 이혜숙 목사

교회 특성상 인터넷 예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면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와 모든 교제를 삼가하고 있습니다. 한글 교실도 쉬고 있고 단지 예배와 성경공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를 통해서 철저한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워 나오지 않는 인원이 50%이지만, 놀라운 일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출석도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동지방회 동경조후교회 정규화 목사

설립 70주년을 맞는 해인 본교회는 3월에 동경의 Covid 19의蔓延으로 신도들 중에 교회를 오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4월들어 일본정부의 비상사태선언으로 교회는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대체하고 수요일 성경공부와 금요 기도회도 영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31일 주일 예배 부터는 예배 회복의 주일로 정하고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복귀했지만, 아직도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가정이 교회로 인도되어 우리 모두에게 전도에 대해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에게는 매일 말씀을 정리한 것을 교회 단체 카톡 방에 올려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며, 개인성경공부 교재를 배포하여 집에서 읽고 제출하는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동지방회 요코스카교회 김신야 목사

예전에는 20-25명의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한국, 미국에 귀국한 기족들이 있어서 예배 참석수가 줄어 들었으며 더군다나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가게를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된 신도도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심방을 못 가고 있습니다. 제직회에서 대면 예배를 유지하는 한편 줌으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대면, 줌 포함해서 20명정도 신도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현재 방식으로 예배를 지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달에 두번씩 열어 왔던 찬양 예배도 중단하고 있고, 상가대 찬양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활동을 시도하자는 의견이 나와 10월달 부터 예배당에서 한달에 두번씩 수요일에 모여서 성경포럼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 못하신 신도들이 헌금을 송금 등 많은 분들의 도움과 신도들의 열성으로 제정도 크게 악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관서지방회 나라교회 강우열 목사

3월 코로나사태가 시작되고부터 전철을 이용하는 원거리 신도들은 출석하지 못한 채 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전 후에는 교회당 안팎을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하게 하였습니다. 예배후 식사는 하지 않으며 그 대신 삶은 계란 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실은 6월부터 9명이 수업을 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신도들은 심방을 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서남지방회 오리오교회 김승희 목사

4월12일 부활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후 '긴급사태선언'에 따라서 4월19일부터 3주간은 주보와 설교원고를 미리 신도들 집으로 보내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10일 주일부터 평소와 같은 예배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철저히 막기 위해 교회에서는 모두가 반드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 소독제로 살균하며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당에 인접하는 방의 모든 문을 다 열어 환기도 잘 되도록 위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단에도 아크릴 보드를 설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가능한 한 비말을 피하게 하며 감염 방지에 애쓰고 있습니다.

또 점심이나 교제의 모임은 가지지 않으며 다른 교회들과의 활동이나 행사도 모두 다 중지하였습니다.

서남지방회 후쿠오카중앙교회 신치선 목사

3월부터 주일오후예배, 어린이예배, 청년회예배를 중단,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던 4월12일부터 5월20일까지는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5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주일 오전예배와 수요일예배와 새벽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다.

예배드릴 때 마스크 착용, 출석명부 작성 및 발열체크, 예배 전후 교회소독, 예배시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주일 출석률이 많이 줄었으며, 주일에 교회에 출석 못한 신도들을 위해 매주 설교원고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발송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는 카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빚을 갚아 나가는 중인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교회의

ZOOM 토론회 열어 코로나재난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전망

선교위원회 주최로 Zoom 토론회가 10월11일(주일) 오후7시부터 2시간 동안, 목사, 장로, 여성회에서 40명이 참가 하여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는 KCCJ>라는 주제 아래 <코로나 시대의 KCCJ의 선교 과제>라는 부제를 가지고 열렸다.

선교위원장 김종현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총회장 조영철목사의 인사와 기도로 시작하여 주제 강연은 이원중목사가 초대 교회에서 현대까지의 전염병에서 교회와의 관계와 한국 교회 상황 및 일본 교회의 상황이 KCCJ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KCCJ 선교의 과제를 강의했다.

발제는 교도교회 임명기목사, 오가키교회 채은숙목사가 각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며 문제점 등을 제안하고 종합 토론에 들어가, 질문과 앞으로의 KCCJ 선교적 과제들을 나누었다.

(이원중목사의 주제 강연은 이번달부터 3회에 걸쳐 복음신문에 연재하기로 한다.)



동경제일교회

김은영장로 장립식 거행 10년간 집사로서 봉사하여 장로 피택

10월25일(주일) 동경제일교회에서는 김은영장로 장립식이 거행되었다. 당회장 임선형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이명충목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엡4:11~14) 라는 제하의 설교를 했다.



장로 장립식은 관동지방회장 김병철목사의 사식으로 소개와 서약, 안수기도 및 선포로 진행되었다. 금번에 장로 안수를 받은 김은영장로는, 1967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2000년에 유학생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친구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동경제일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2001년에 세례를 받고, 2010년부터 서리집사로 섬겨왔다.

가족으로는 부군과 1녀가 있다.

오광현집사 (오사카교회), 한국정부로부터 "동백장" 수훈



2020년 재외 동포의 날에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 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오사카에 태어나 60여년, 대학생 때 KCC에서 지역 활동을 통해 만난 것을 계기로 오사카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 다행히 이쿠노 지역 교회가 힘을 합쳐 운영하는 이쿠노 지역 활동 협의회, 그후 성공회가 시작한 성공회

이쿠노센터에서 일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교회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의 반려자도 청년회 전국 협의회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수훈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활동을 통하여 내가 해 왔던 이쿠노 지역 활동과 재일 동포 인권 운동,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교류 사업 등이 평가되었습니다. 한국과의 교류에서는 오사카의 장애인 복지를 소개함으로써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시작된 일도 있었습니다. 지문 날인 거부 운동 때 일본 정부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싸운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수훈한 활동과 운동을 평가해 주신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동시에 성숙한 한국 사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수훈이 재일 동포의 젊은 세대에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큰 것만은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을 가까이 하며 활동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풍요한 사회의 창조로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언제 까지나 계속 갖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기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10:15)

오영석장로(도쿄희망그리스도교회), 한국정부로부터 "목련장" 수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6:38)

1983년 아내와 두 아이를 한국에, 혼자서 패션 유통의 선진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일본에 왔습니다. 31세에 어학연수부터 시작한 유학. 어머니의 기도가 힘이 되었지만 나

의 신앙 생활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함께 걸어 주시고, 좌우도 모르는 나를 사랑하시어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문화복장학원을 졸업한 1988년 첫 외국인 정규직으로 케이오(京王)백화점에 취직했습니다. 한일 유통 현장에서 다양한 일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입니다. 후에 한국 가정 요리라는 새로운 아이টে임을 가지고 김치 박물관을 통하여 음식 문화 선교의 길을 열어 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디아스포라로서 달려오는 가운데 주님은 실로 많은 사람들을 저를 돕는 분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길을 개척하고 극복하게 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원래 남의 일을 보고만 있지 못하는 성품을 가진 나는 민단과 YMCA를 비롯한 다양한 재일동포 사회에 자리를 두고 꾸준히 섬겨 왔습니다.

이번에는 2014년 발족할 때 부터 2기 5년 동안 봉사를 해 온 신주쿠 한국 상인 연합회 회장을 물러나면서 분수에 넘치는 수훈(국민훈장 목련 장)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아직은 길 중반이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되기도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루어야 할 것은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과제를 위해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씩 마주하고 싶습니다.

가
와
니
시
교
회창립90주년 감사예배 열어
《90년의 발자취》기념지 발간

가와니시교회에서는 지난 10월11일 주일예배를 <교회 창립 90주년> 감사예배로 드렸다.

90년 전(1930년), 한국 대구에서 건너온 방성원씨, 정두수씨 등 6명이 방성원씨 집에서 이케다(池田)전도소로서 예배를 시작하여 캐나다 선교사 L.L.Young목사의 지도하에 같은 지역의 후시미(伏見)전도소와 합병하였고, 2016년에는 니시노미야(西

宮)제자교회와 합병하여 지금의 가와니시교회가 되었으며 이중 제목사가 부임하여 위임을 받았다.



〈선교위원회가 주최한「코로나 재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는 KCCJ」토론회 주제강연〉

코로나 시대 KCCJ의 선교 과제 (상)

이 원 중 (교토남부교회 협력 목사)

1. 들어가며

일본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수는 98,132명, 사망자는 1,724명에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는 43,571,756명, 사망자 1,160,421명에 이르렀다(10월 27일 현재). 우리 주변에도 코로나에 감염이 된 사람이 있으며, 그 중에는 사망자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감염자수와 사망자수 이상으로, 감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사회 제반의 조치와 통제, 제한 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는 앞으로 인류의 사회 활동에 전반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교회 역시 코로나19와 방역 조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미 일어난 변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숙수무책이다. 다만 필자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이하 KCCJ)의 일원이자 한국과 일본의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개신교의 현재 상황 속에서 KCCJ가 지금 이 위기의 때에 세워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한 소견을 순회하고자 한다.

2. 역사속의 전염병과 교회

사실 인류의 역사 속에 전염병은 늘 함께 해 왔고 교회도 역사적으로 그러한 전염병을 겪어 왔으며, 그때 그때 나름의 신앙과 지식에 따라서 대응해 왔다.

(1) 초기교회

로마제국은 주후 165년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해서 약 15년의 유행기간 동안 로마 제국 인구의 1/3~1/4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51년에도 전염병이 크게 유행해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내었다. 로드니 스타크는 이 두 번의 전대미문의 전염병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진 신앙과 삶의 자세로 인해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주장한다(Rodney Stark, The Rise of Christianity, 2015).

그 내용은 첫째, 기독교는 이 재난에 대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며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 당시 로마제국주민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병자들을 희생적인 사랑과 연대의 마음으로 돌보았다. 그 결과 오히려 기독교인들 중에 환자들이 생존하는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으로 비기독교인들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의 높은 생존률은 하나의 '기적'으로 여겨졌으며, 이에 따라 기독교로 회심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셋째, 서로 도우면서 살아 남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살아 남았을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애착과 연대 관계 속으로 받아들였다. 이 연대 관계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점차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전염병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

(2) 중세교회

14세기 중반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었던 흑사병(Black Death)으로 말미암아 당시 유럽 인구의 최소 30%, 많게는 60%가 사망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는 중세 유럽에 커다란 변화를 낳았다. 중세 유럽을 지배하던 교회와 그 신앙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Philip Ziegler, The Black Death, 1969).

이 흑사병에 대해서 교회는 그것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그러한 설교를 하던 사제들도 누구 못지 않게 똑같이 흑사병에 걸렸고 죽었다. 당시 유럽인들이 보기에 교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었다. 선량한 사제들은 성도들과 함께 죽어갔으며, 그들을 대신해 불충분한 자질을 가진 이들이 사제로 임명되었다. 교회의 예배당과 권력은 회복되었으나, 흑사병의 재난에서 회복되는 과정 중에 교회 및 기존의 질서와 교리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은 커졌다. 사람들을 페스트 이후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3) 스페인 독감과 교회

근대의 과학과 의학의 혁명 이후에도 인류는 전염병의 전세계적 유행을 경험했다. 그것이 1918~20년, 세계를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이다. 이로 말미암아 당시 전세계 인구의 약 1/3이 감염되고 최소한 5천 만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의 시대와는 달리 의료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방역이 국가 주도로 행해졌다. 정부는 군중 집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금하고, 학교나 기숙사 등도 당분간 폐쇄하는 한편 마스크를 보급했으며, 방역 센터와 긴급 치료소 등을 세웠다. 많은 교회도 정상적으로 모일 수는 없었다. 교회의 신앙활동이 국가의 통제 및 정책과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으며 의학과 과학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되었다. 서구에서는 정부와 사회의 방역 지침에 교회가 따르기도 했지만, 교회의 활동이 감염의 확산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집회를 금하는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는 교회도 있었다.

현재 도미자카 그리스도교 센터(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는 '스페인 독감과 일본의 교회'라는 주제의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도 같은 기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4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며, 당연히 교회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 목사, 신학자에게 전염병은 신앙적, 신학적 과제가 되지 않았다.

(다음 호에 계속)

